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매주 산업현장 방문한다

‘산업부 기업동향대응반’ 운영
장·차관, 불금 간담회 등 통해
산업 정책·규제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전 직원이 매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1월부터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대응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이 수차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책임부처로서 장관부처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방문, 기업 미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전 장·차관은 업종별 릴레이식으로 열리는 ‘불금 간담회’와 ‘일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실·국장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업종별 기업과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장·실무자는 격주 수요일을 ‘현장 방문의 날’로 지정해 현장방문·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정기(분기 1회)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다.

소관 부서·담당자 지정, 산업부 1차관 중심의 ‘현장으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필요시 경제규제혁신전담반이나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기동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과학원, 미세플라스틱 대응안 모색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일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에 위치한 씨마크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선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석, 분포특성 및 위해성’에 대한 중점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행사는 1·2부로 나뉜다. 1부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동향 및 분석, 2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국내외 전문가 8명이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이 ‘플라스틱 국

제협약 협상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윈 카우거 미국 무어 플라스틱오염연구소 박사의 ‘먹는 물 미세플라스틱 자동 분석’과 관련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티모시 간트 영국 보건안전국 교수가 ‘세포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전문가들 발표에 이어 청중들이 함께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포특성 및 위해성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환경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생태원, 세계 생태계 보전 선도

창립 기념식·국제 학술토론회

국립생태원이 오는 2~3일 이틀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검색어: 국립생태원)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립생태원은 기념식에서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10년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 연구·전시·교육 전문기관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 2일 오후부터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국제 학술토론회

(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관측(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세션1) △생태정보·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세션2) △생물다양성의 강화·보전과 복원(세션3) 등이 주요 토론 과제다.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아나 마리아 에르난데스 살가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전의장,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선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국립생태원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 자연생태 공공기관으로서 세계 생태계 보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황근 장관, 네팔서 농축산 협력 강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부터 3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의 첫 네팔 방문으로, 정 장관은 네팔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네팔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네팔의 고위급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벌인다.

네팔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농가소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 기술 전수와 함께 민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2023년 3월 중에 108

마리의 젖소를 보내는 등 네팔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네팔은 낙농업 발전과 벼 품종 개량, 인적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번 정 장관의 네팔 방문이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관계를 긴밀히 하고 농축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 만에 식량과 젖소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듯이, 한국의 농축산업 발전의 경험과 기술을 네팔에 지속 전수하여, 네팔의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업인력공, 美·日 현지기업 취업 박람회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대상이다.

행사에는 일본(23개 기업)과 미국(6개 기업) 등 11개국 43개 기업이 참가해 청년 32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은 행사장에서 해외취업 설명회와 해외취업 상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취업준비특강 ▲국제기구 진출 및 위클리리데이 설명회 ▲이력서 및 면접준비 특강 등을 지원한다. 상담관은 ▲국가별 해외취업 상담 ▲면접·이력서 컨설팅(영문 및 일문) ▲영어 원어민 일대일 면접 코칭 등을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월드잡플러스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행사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의 해외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고용노동부·부산시가 주최, 공단·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 렘피스킨병 400만 마리 분 백신 배부

중수본 “확진 사례 74건으로 늘어”

국내 소 렘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1일 오후 모두 74건으로 늘었다. 당국은 긴급 수입한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 단위까지 배부했다.

렘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확진 사례가 충남 당진과 서산에서 추가돼 전날보다 4건 늘어난 74건이라고 밝혔다.

농장 74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5077마리다.

중수본은 또 약 400만 마리분의 렘피스킨병 백신을 긴급 수입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를 완료했다.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에서 렘피스킨병이 국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두었던 백신 약 54만 마리분을 신속히 공급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 농장에 긴급히 접종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약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로 긴급 수입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소사육 농가는 백신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접종 방법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농가에서는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